2016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성과 보고집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Tel. 051.744.7707 / **Fax.** 051.744.7708~9
www.bscf.or.kr

2016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성과 보고집

THE PERFORMANCE REPORT OF INTERNATIONAL RESIDENCY DISPATCH IN 2016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본 자료집은 2016년도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가팀의 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재)부산문화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2016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성과 보고집

THE PERFORMANCE REPORT OF INTERNATIONAL RESIDENCY DISPATCH IN 2016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2016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성과 보고집

p06

영국 런던

건넘-슬픔의 의식 Crossing Over-Ritual of grief

프로젝트 기간
2016년 7월 27일~2016년 8월 24일

장소
마그달네교회, 로젠펠트로 포치니 갤러리
(st magdalene's church, rosenfeld porchini gallery)

협력 및 진행
마그달네교회, 로젠펠트로 포치니 갤러리
(st magdalene's church, rosenfeld porchini gallery)

책임 코디네이터
허경미

참여 작가
허경미, 허성준, 엄효빈, 박봉수, Amit Rai Sharma, Marc Stevenson, Marc Stevenson, Letitia Wilkinson, Laura Lorenzi

현지 코디네이트
박봉수

p22

미국 뉴욕

뉴욕 & 부산 공연예술네트워크 결성, 그 첫 단추

뉴욕 타블라 라사 씨어터에서 한국의 헬렌을 펼치다

프로젝트 기간
2016년 11월1일~2016년 11월22일
(전체사업기간 : 2016년 7월~12월)

장소
La Nacional – Spanish Benevolent Society
(미국 뉴욕 주 뉴욕 시)

협력 및 진행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Tabula RaSa NYC Theater and Performance Lab
La Nacional – Spanish Benevolent Society
Theater for the new city
Colombian Consul General in New York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책임 코디네이터
이지숙

참여 작가
이지숙, 주혜자, 진선미, 이효림, 김윤호, 이영재, 이지희, 전승은, 김범기

현지 코디네이트
김범기

영국 런던

건넘-슬픔의 의식

Crossing Over-Ritual of grief

project 01

건넘-슬픔의 의식

Crossing Over-Rituaof grief

프로젝트명

건넘-슬픔의 의식
(Crossing Over-Ritual of grief)

기 간

2016년 7월 27일 ~ 2016년 8월 24일

장 소

마그달네교회, 로젠펠트로 포치니 갤러리
(st magdalene's church, rosenfeld porchini gallery)

협력 및 진행

마그달네교회, 로젠펠트로 포치니 갤러리
(st magdalene's church, rosenfeld porchini gallery)

후 원

부산문화재단

책임 코디네이트

허경미

참여 작가

허경미, 허성준, 엄효빈, 박봉수, Amit Rai Sharma, Marc Stevenson, Marc Stevenson, Letitia Wilkinson, Laura Lorenzi

현지 코디네이트

박봉수

행사 및 활동

1. 7. 30. ~ 8. 1. 아티스트 미팅 및 공연장 답사
2. 8. 2. ~ 8. 12. Part1. 작품제작 및 연습
3. 8. 7. 아티스트 워크숍개최
   장소 : 로젠펠트로 포치니 갤러리
4. 8. 13. 4pm 마그달네교회(the crypt st mary mary magdalene's church) 공연
5. 8. 15. ~ 8. 19. Part2. 작품제작 및 연습
6. 8. 20. 4pm 로젠펠트로 포치니 갤러리 (upstairs rosenfeld porcini gallerly)공연

언론매체 성과물

국내 언론매체 : 부산일보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60725000023

부산문화재단 지원금

20,000,000원

참여 계기

2015년 영국런던 로젤펠트 포치니 갤러리 소속작가인 박봉수 씨와의 협업이 이번 레지던시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한국에 레지던시 작가로 참여하고 있던 박봉수 씨는 죽음을 주제로 한 미디어작업을 계획하고 함께 협업할 안무가를 찾던 중 나와 작업을 같이 하며 시작된 것이다. 작품 제목은 〈레테의 강〉이었다. 한국에서 레지던시를 끝내고 런던으로 돌아가 전시회를 가졌고 현지의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몇 개의 섹션으로 연작화 해보자는 제안을 다시 했고 기회를 찾던 중 레지던시 사업에 지원하여 다시 영국에서 작업하게 되었다.

행사 및 활동

7. 30. ~ 8. 1. 아티스트 미팅 및 공연장 답사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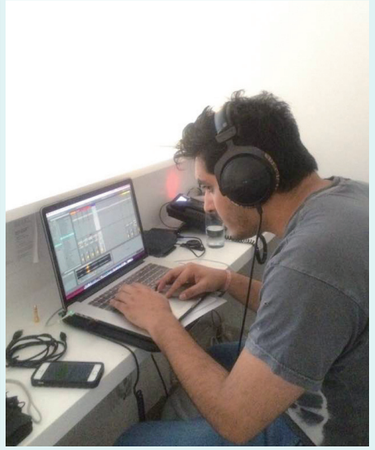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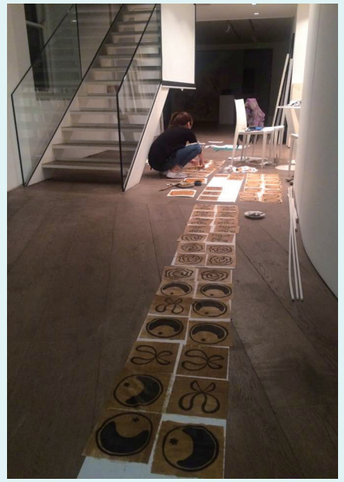
8. 2. ~ 8. 12. Part 1. 작품제작 및 연습 02

8. 7. 아티스트 워크숍개최 (장소 : rosenfeld porchini gallery) 03

8. 13. 4pm 마그달네교회(the crypt st mary mary magdalene's church) 공연 04

8. 15 ~ 8. 19. Part 2. 작품제작 및 연습 05

05

06

— 8. 20. 4pm 로젠펠트로 포치니 갤러리(upstairs rosenfeld porcini gallerly) 공연

2016년 영국 런던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작가 약력

허경미

부산대학교 무용과, 경성대학교 무용교육대학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2016 멀티미디어퍼포먼스 'Dialogue' 안무 및 출연
부산 예술제 '신곡' 안무 및 출연
2015 다원공연 Body of Projections part1. Come Across '쿰바카', '투원룸' 안무 및 출연
상해 댄스페스티벌 초청 '신곡身哭' 안무 및 출연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부산의 이야기 공연으로 꽃피다 'April' 안무 및 출연
2014 SCF 서울 국제 안무 페스티벌 참가 '신곡(身哭)' 안무 및 출연
무용단 Redstep 기획공연 Physical Projection '쿰바카' 안무 및 출연
2013 제10회 부산 국제무용제 초청공연 '외치다' 안무 및 출연
무용단 Redstep 창작춤 '몽-사이의 유희' 안무 및 출연
국제레시던시 '보울' 한국과 인도 전통 가무악의 창조적 만남 참여작가 (안무 및 출연)
'즉흥 콜라보레이션-곁에 있다' 출연
2012 전국무용제 은상 수상 '외치다' 안무 및 출연

엄효빈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2016 무용단 레드스텝 정기 공연춤 추는 몸. 사유의 순수한 이미지 중 '움치타다' 출연 및 안무
2016 부산 예술제 '신곡' 출연
춤패 배김새 정기 공연 전통 춤 레파토리 출연
Redstep 기획공연 'Remember That'출연
2015 춤 너머의 춤 'Beyond 온' 출연
무용단 Redstep 창작춤 'To Somebody' 출연
Body of projections. part two '이미지의 원심력과 구심력' 안무 및 출연
REMEMBER THAT 페르소나는 완전하지 않았다 '충돌' 출연
젊고푸른춤꾼한마당 '무주의 맹시' 안무 및 출연

허성준

허성준 판댄스씨어터 단원

2016 부산무용제 줄라이댄스씨어터
금홍아 금홍아 출연 (대상)
도심속 모너머노마드
판댄스씨어터 라보엠 출연
무용단 Redstep Remember That '도착' 안무 및 출연
젊고푸른춤꾼한마당 '도착' 안무 및 출연
2015 D_effect dance theater '개판(開板)' 안무 및 출연
다원예술프로젝트 body of projections PART TWO
'이미지의 원심력과 구심력' 출연
무용단 Redstep 창작춤 'To Somebody' 출연
전국무용제 손영일무용단 '잊혀질 권리' 출연
판댄스씨어터 정기공연 'Left behind' 출연
부산무용제 판댄스씨어터 'Left behind' 출연
부산공연장 상주단체페스티벌 무용단Redstep 'april-품' 출연
젊고푸른춤꾼한마당 'back to black' 안무 및 출연
2014 조희정의 춤 '축제' 출연
하종원 현대춤 '발없는말' 출연
박은지의 춤 '영과 일 사이' 출연
2013 판댄스씨어터 'slow slow wait!!' 출연
2012 허종원 현대춤 '오감도' 출연

박봉수

영국 로젠펠트 포치니 소속작가

2010-2013 슬레이드 미술대학, 미디어 아트 석사, 런던, 영국
2007-2009 보르도 보자르 미술대학, 파인아트 학사, 보르도, 프랑스

개인전

2014 'cord-cell-cube' 퍼포먼스, 로젠펠드 포치니 갤러리, 런던, 영국
'Before Lines, After Lines', 한미 갤러리, 런던, 영국
2013 'EMANATE', 목 스페이스, 런던, 영국
2005 박봉수 개인전, 가오리 갤러리, 오사카, 일본

단체전

2016 'Lifting the Veil', 로젠펠드 포치니 갤러리, 런던, 영국
2015 LOOP Barcelona, 바르셀로나, 스페인
'1111', 울산 문화회관, 울산, 한국
'2015 싱글채널비디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2014 'Sound and Vision', 로젠펠드 포치니 갤러리, 런던, 영국
Moving Image Art Fair, 이스탄불, 터키
Art Video Night, 니브 아트 센터, 델리, 인도
2013 'Lineage', 바비칸 트러스트 아트 그룹, 런던, 영국
ASC 오픈 스튜디오, ASC 아트 스튜디오, 런던, 영국
'The masks we wear', Kristin Hjellegjerde gallery, 런던, 영국
Go West Fetival 2013 퍼포먼스, Gunes Theatre, 프랑크푸르트, 독일
슬레이드 석사 졸업전시, 슬레이드 미술대학, 런던, 영국
'In the void', The Crypr Gallery - St Pancras Church, 런던, 영국
2012 'Penumbra', 버먼시 프로젝트 스페이스, 런던, 영국
'Platform 1' 퍼포먼스, 캄덴 아트 센터, 런던, 영국
2011 'Grotesque Genome', 목스페이스, 런던, 영국
슬레이드 학기전, 슬레이드 리서치 센터, 런던, 영국
2010 'Hors Champs', L'espace Cultureal Maurice Druon, 쿠트라, 프랑스
2009 'Legends Urbaines', Evento 아트 페스티벌, 보르도, 프랑스
'PB x PB', Centre Social et Culturel Reseau Paul Bert, 보르도, 프랑스

레지던시

2016 Sim Residency,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
2015 모하 창작 스튜디오 6기, 울산, 한국

참여작가 활동후기

• 허경미

참여 계기에서 밝혀 듯이 본 레지던시는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박봉수 씨와의 협업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죽음을 주제로 다룬 미디어작품 〈레테〉를 그 개념과 의미를 확장하여 영국에서 작업해보자는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국적 제의식과 함께 동서양을 관통하는 죽음을 해석하는 인류의 축척된 무의식을 고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제목을 '건넘-슬픔의 의식 '(Crossing Over – ritual of grief)'로 정하였다.

작업은 주로 시공간의 '건넘(Crossing over)'을 놓치지 않기 위해 런던의 아티스들과 작업하되 작업의 주요소인 움직임과 음악에 있어 한국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진행하였다. 움직임은 현지 전문춤꾼(Marc Stevenson, Marc Stevenson, Letitia Wilkinson, Laura Lorenzi)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 나갔으며 음악은 미리한국에서 준비해 간 양일동선생의 소리음원과 현지 음악가 Amit Rai Sharma가 자료로 모은 한국의 전통음악들 그리고 작가들이 부르는 강강술래 소리를 녹음하여 작업하였다.

그렇게 매순간 쫓기며 두 작품을 만들어 각각 고전적이고, 현대적인 공간에서 공연하였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적인 형식을 현지 아티스트들과 공유하며 오히려 우리 것을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두 편의 작품을 언어가 다른 현지 아티스트들과 진행하기에는 쫓길 수밖에 없는 시간 이였다. 그러다보니 작품제작에 급급해 현지 아티스트들과 작업의 주제인 죽음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충분히 나눌 시간을 가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슬픔의 의식(ritual)은 공유했으나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될 수 있는 슬픔의 의식(consciousness)을 은밀하게 나눌 기회를 놓친 것이다. 죽음을 받아드리는 의식이야말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삶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주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면을 빌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한국에서 런던까지 작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 뿐 아니라 모든 작업과정을 챙긴 박봉수 작가와 한 달이라는 귀한 시간을 내어 작품 제작에 큰 역할을 해준 엄효빈, 허성준작가 그리고 짧은 시간 낯선 움직임과 소리를 흡수해서 훌륭하게 한 팀이 되어준 현지작가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엄효빈

런던 도착 & 런던에서의 무용수로 사는 것은?

살인적인 더위가 모두의 입에서 욕이 떠나질 않게 했던 2016 한국.

우리 일행은 여름이 오기 전 서둘러 영국으로 떠났고 2016년 7월의 마지막 수요일.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로젠펠트 갤러리의 박봉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긴 비행으로 정신이 없던 우리의 손에는 어느새 현지 일정이 적힌 일정표가 쥐어져 있었다. 일정표에는 현장답사, 갤러리 미팅, 영상 촬영, 음악 작업등 많은 일정들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 일정들이 부담스럽기보다는 해외에서의 새로운 작업이 어서 빨리 시작됐으면 하고 설레기 시작했다.

해외에서의 공연이 처음은 아니었다. 2009년 프랑스 제미노스에서 열린 세계민속 무용 축제에 참가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 작품을 공연하러 간 것이었고 현지의 아티스트들과의 교류도 없었을 뿐더러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기에 이번 런던에서의 'Crossing over' 작업과는 매우 달랐다. 사실 거의 평생을 살아온 부산에서도 타 장르와의 콜라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각 아티스트들간의 교류도 적을 뿐더러 좋은 기회로 만난다 해도 작업 성향이나 작품의 느낌이 맞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에서 영상과 설치 미술, 무용의 콜라보라니! 두근거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런던에 도착해 하루는 시차 적응을 위해 충분히 쉬고 둘째 날부터 우리의 바쁜 일정은 시작 되었다. 공연할 크립트와 로젠펠트 갤러리의 답사를 끝내고 함께할 현지의 현대 무용수들과 미팅을 했다.

현지의 무용수 마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유럽에는 특정 사이트에 무용수 모집에 대한 공고가 뜨고 해당 공연에 관심이 있는 무용수들

이 지원을 해 오디션을 보는 방법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했다.

요즘 한국의, 특히 내가 활동 하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일부 무용수들이 장르를 넘나들며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많은 무용수들도 없을 뿐 아니라 졸업 후 특정 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공연에 관련된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내 주변에도 공연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몰라 못하는 아티스트들도 꽤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유럽의 오디션 시스템은 참여하는 개개인에게도, 매일 똑같은 아티스트들만 만나던 기획자, 다양한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관객에게도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마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정말 평소에 궁금하던 질문을 했다.

효빈 : 마크 , 런던에서 무용만 하며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어?

사실 무용만 하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라는건 무용수들의 꿈 아닐까?!

마크 :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나도 그러고 싶지만 런던도 아마 어느 나라나 같겠지만 무용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효빈 : 그럼 마크는 무용단의 소속인거야? 어떻게 생활해?

마크 : 나는 무용단의 소속으로는 있지 않아. 생활은 수업도 있고 워크도 하곤 해.

결론은 런던도 똑같구나 였다. 생계활동 따로 예술 활동 따로. 런던의 아티스트들도 부산의 우리들도 모두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날이었다.

한국 호흡하는 서양 무용수 & 공연

공연에 필요한 부수적인 일정들을 끝내고 나니 현지의 무용수들과의 작업날이 되었다. 사실 이번 작품의 분위기와 컨셉에 어울리는 움직임들을 탐구하다 보니 한국적인 호흡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외국 친구들이 어색해 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평소 다른 무용 전공인 무용수들과 작업을 하면 몸의 이질감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 마크와 레티샤, 라우라는 독특한 움직임의 한국 호흡을 잘 이해하고 움직였다.

역시 많은 장르의 오디션을 보며 춤추고 있는 무용수들의 장점인 것 같다. 함께 땀흘리며 서로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다 보니 크립트에서의 'crossing over1', 로젠펠트 갤러리에서의 'crossing over2'의 공연이 성공리에 끝마치게 되었다.

크립트에서의 첫 공연은 크립트 자체의 묘하고 서늘한 느낌과 해질녘의 마지막 햇살, 관객의 온기가 함께 만나며 신비로운 느낌의 공연이었다.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 진행이었고 장소가 주는 분위기가 크게 한 몫하며 관객들에게 어렵지 않은 공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갤러리의 공연은 좀 더 모던하고 볼거리가 많았던 공연이었다. 박봉수 선생님의 드라이플라워, 갤러리 자체의 모던한 느낌, 단순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동작들이 어우러져 설명적이기 보다는 시처럼 함축적이었던 공연이었다.

어느 공연이 더, 덜 좋다는 것 없이 공연이 끝나는 순간 눈물이 흐르는 걸 참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고생스러워서가 아니라 기뻐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또 만날 수 있는 순간의 약속이 되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던 것 같다.

후기를 적고 있는 이 순간에도 런던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 그립다. 좋은 기회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 낯선 환경이지만 늘 꿈꾸던 그곳에서의 하루하루가 나날이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이 되었다.

• 허성준

Crossing over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신성하게 여겨져 오거나 핍박을 받거나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꾸준히 유일신과 구원이라는 관념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독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마음과 믿음이 모여 실체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 공간. 교회.

그 영적인 공간 속에서도 비밀스럽게 여겨져왔을 것만 같은 어두운 지하실은 먼지마저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하실을 빠져나와 교회, 그리고 교회의 문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oxford circus역으로 가본다.

런던의 중심가

거리의 사람들 각자의 관념과 믿음이 공존하는 듯, 함께 거리를 활보하는 '새로운' 곳이다.

여행객들의 가벼움이 도시 전체에 깔려있어 무거운 건물들 틈에서도 가벼움을 잃지 않을수 있고 (물론 나도 여행객이니 마음이 가벼웠겠지만) 나이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들의 표현이 온몸으로 드러나있는 사람들이 빌딩 구석구석 묻어 있다.

그 다양함들을 비켜 rathbone street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터널을 뚫어 놓은 듯, 커다란 건물을 관통하여 통유리로 외벽을 만든 갤러리가 하나 있다.

rosenfeld porcini

하얀 벽으로 이루어진 갤러리는 아주 오래전 동굴속에 벽화를 그리는 인간들의 삶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여 현재의 사유를 통해 작품으로 하얀 벽에서 그리고 나무바닥에서 돋아나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교회의 지하실(crypt)과 rosenfeld porchini

우리는 이곳에서 죽음, 망각의 강 혹은 이별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 특별한 공간들 특히 crypt는 이미 이 장소가 주는, 우리가 받

아들이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여 어떠한 움직임으로도 아니면 아무 움직임 없이도 그것 자체로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rosenfeld porchini는 현재라는 가벼움이 우리의 움직임을 자칫 무의미하게 보이게하는 듯했다.

Crypt에서는 떠나보내는 자들, 남겨진 자로서 떠나는 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하지만 아픔은 언제나 남겨진 자들의 몫이지 않은가. 어찌 손만 흔들어 줄 수 있을까. 아파하며 춤을 추고 구르고 위로 뛰고 앞으로 달리고 멈췄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rosenfeld porchini는 시지프 신화로 시작한다.

각자의 바위는 모두 각자의 것이다. 필연과 숙명 어떤 것이건 상관없지 않은가 그저 각자 앞의 바위를 밀고 나갈 뿐. 바위가 또 다시 굴러

떨어진다 하여도. 그리곤 그 인생의 회전에 추모했다.

두 번은 없을 경험. 그렇다. 두 번은 없다.

짧은 기간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서 함께 도와준 친구들에게 아주 감사함을 표한다.

• 박봉수

작년 그리스 신화의 지하세계에 나오는 레테의 강을 주제로 비디오작업을 구상하던 중 허경미 안무가분을 만나게 되었다. 사후세계에 대한 동서양의 공통적인 본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이 작품을 함께하면서 서로 관심 주제가 유사하다고 느꼈다. 서로 다른 예술 형태-춤과 미디어-로 표현하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예술장르의 실험에 의미를 둔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이번 부산문화재단 후원으로 다시 만난 허경미 안무가와의 협업으로 한국의 전통춤과 음악을 현대미술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제작한 [건넘 – 슬픔의 의식(Crossing Over – Ritual of Grief)]을 런던의 컨템포러리 예술계에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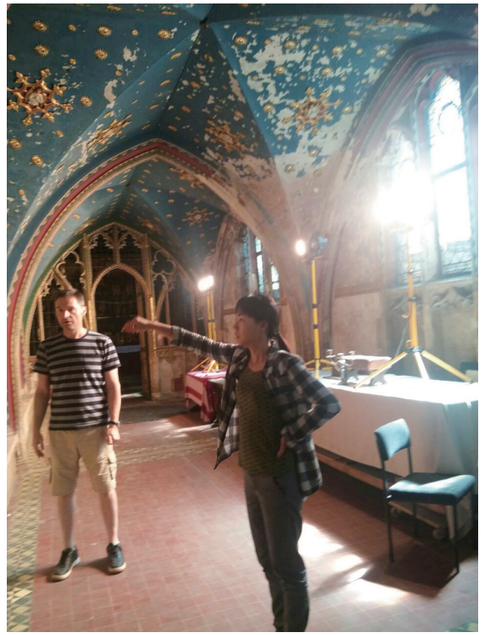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총 두개의 대조적인 퍼포먼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런던 Saint Magdalene 교회의 지하무덤에서 2부는 런던 중심에 위치한 Rosenfeld Porcini 갤러리에서 공연하였다. 예산문제로 부족했던 홍보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었는데 이 장소들의 특수성과 현대미술과 한국전통예술의 조합이 각종 예술형태가 존재하는 런던에서도 특유한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1부에 사용한 레퍼런스로는 한국의 토속신앙, 살풀이, 상여소리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하세계의 강의 이미지들로 지하무덤이라는 장소의 특색에 맞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카오스와 지하세계에 초점을 맞췄다.

2부에서는 1부에서의 죽음의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절제되고 형식을 갖춘 장례의식에 바탕으로 한국의 궁중 제례악, 수제천, 불교의 육바라밀, 오행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에 관해 알베르 카뮈가 쓴 에세이를 작품의 내용에 담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죽음에 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그 어떤 느낌, 동서양과 시대를 초월한 인간 내면 아득한 어느 곳에 내재된 태초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두개의 공연을 처음 준비부터 제작 연습 실연까지 한 달 안에 마쳐야



했던 빡빡한 스케줄에도 모두를 잘 끌어주신 안무가님과 타지에서 잘 적응하고 런던에서의 첫공연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답게 공연해주신 허성준 선생님과 엄효빈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런던 현지 오디션으로 뽑힌 마크, 레티샤, 라울라 모두 처음 해보는 한국무용 스텝을 인내심 있게 잘 따라가 주었다. 또한 작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작곡과 한국전통음악, 텍스트 등을 피처링 해준 아밋 그리고 조명과 카메라를 담당한 올리버 그 외 도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언론보도자료_국내언론매체

부산춤꾼 허경미 영국서 한국 창작춤 선보인다. _ 부산일보 2016. 7. 24.

crossing over - ritual of grief

live - performance

bongsu park + kyung mi huh

seong jun heo
hyo been eom
amit sharma

marc stevenson
letitia wilkinson
laura lorenzi

part I
saturday 13 august 2016
4:00 - 5:00 pm

the crypt
st mary magdalene's church

rowington close, london
w2 5tf

part II
saturday 20 august 2016
4:00 - 5:00 pm

upstairs
rosenfeld porcini gallery

37 rathbone street, london
w1t 1nz

supported by

pusan cultural foundation & rosenfeld porcini gallery

부산문화재단 rosenfeld porcini

프로그램

Crossing Over – Ritual of Grief

Part I
13th August 2016, 4-5PM
St Mary Magdalene's Church
Rowington Close, London
W2 5TF

Part II
20th August 2016, 4-5PM
Rosenfeld Porcini Gallery
37 Rathbone Street, London
W1T 1NZ

INTRODUCTION

Fragile, organic, temporal; by experimenting with a dynamic range of media including live performances, videos and installations, artist Bongsu Park seeks to grasp the fundamental aspects of birth, relationships, solitude, life and decay.

For this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Kyung Mi Huh, she explores human reflection on death, transcending geographical and periodic boundaries. Our imaginings of life after death find form in many different ethnicities, traditions, culture, history and religions. Some ancient cultures are suprisingly similar even though they are in no other way interconnected. One of the aims of Crossing Over – Ritual of Grief is to articluate a greater awareness of what it means to be alive, by assuming the position of someone at the point of life's departure.

Crossing Over – Ritual of Grief is a live performance with five dancers and live music. The piece is a collaboration with choreographer, Kyung Mi Huh who's work *The Weeping Body* used a recomposed Korean traditional dance SAL-PU-Ri and a funeral memorial service. Bongsu fuses the Korean funeral rites scene in this piece and adds multi-cultural and contemporary contexts. She also links the narrative to the Grecian myth of five rivers that the dead had to cross to reach the underworld.

Sound artist Amit Rai Sharma has composed the score which features his mix of traditional Korean Shin-Myoung music suffused with contemporary improvisations.

supported by

Busan Cultural Foundation & Rosenfeld Porcini Gallery

부산문화재단 rosenfeld porcini

Bongsu Park was born in Busan, South Korea. She studied at l'Ecole des Beaux-Arts de Bordeaux, France and at the Slade School of Fine, UK. She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in both solo and group shows including The Moving Image Art Fair in Istanbul, Barcelona LOOP Festival, Bermondsey Project Space, Camden Arts Centre, Gyungnam Art Museum in Changwon, South Korea. Bongsu Park's Practice involves video, live performance, site-specific installation, sculpture and drawing. The artist's most recent body of work focuses on collaborations with a number of choreographers which intergrate dance into her video works and live performances. What unifies her work is a sustained and developing interest in the cycle of life: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birth and death, growth and decay.

Kyung Mi Huh i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No.21, <Korean Traditional War Dance>, Successor. She is a former Leader Actor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and also a director of company Red-Step which is certificated as Busan professional art organisation as well as Busan Theatre residing organisation. She has choreographed and performed many piece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She is winner of Grand Prize of 20th Busan Dance Festival and Silver Prize of 20th National Dance Festival, and also Special Prize, National New Dancer Competition, Traditional Dance part and Grance Prize, Korean Dance Association, New Chorerographer Competition.

Seong Jun Heo is a contemporary dancer based in Busan, Korea. He has worked on various projects including 'To Somebody' at Busan Democracy Park Theatre, 'Left behind' at Pan Dance Theatre and 'Body of Projections, Part Two' for Media Art Projections' in Busan, South Korea.
He has also started to develop his own choreography and has created new work including 'Gaepan at D_effect dance theater', 'Arrival' and 'Remember That'

Hyobeen Eom trained traditional dance at Kyungsung University, South Korea. She subsequently joined the Red-Step company. She has starred in 'Tears', 'Beyond On''To Somebody' and 'Early Morning in Red'. She recently produced, choreographed and danced a solo piece entitled 'Inattentional Blindness', in which she explored the phenomena of repetitive dreams.

Amit Rai Sharma is a musician, composer and sound artist based in London. With a BA in Fine Art and a MSc in Psychology of Sound, his practice is an exploration of varying degrees of sonic impact and the space it exists within. Working largely collaboratively with other artists, Sharma's sound works are exercises in compositional restraint; aiming to enhance the audiences overall experience of the space/installation/performance without the sound becoming a focal point in itself. Amit has most recently performed and installed work at The Old Truman Brewery, Brick Lane for The Other Art Fair October 2015, and in Waterstones, Cambridge for Art Language Location art festival 2014.

Marc Stevenson is a 30 year-old dance and music performer. He trained as a dance artist working at Josette Baiz Groupe et Compagnie, Grenade for over 10 years. Since arriving in London in late 2010, he has worked with choreographers and companies including STOMP, Hagit Yakira, Liz Roche, Tara d'Arquian, Riccardo Buscarini, Shaun Parker, and Dance Theatre of Ireland. In the past few years, Marc has been teaching and merging his knowledge of rhythm, movement and voice work to share a more inclusive and personal approach to dance and movement practise in general.

Letitia Wilkinson was born in London and graduated from the 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 with a First Class BA Hons. She first started dancing Hip-Hop and currently dances Argentine Tango and trains in Capoeira. She has recently worked on projects with Hofesh Shechter Company, Hannah Meraki Dance, in immersive theatre with Reuben Feel's and featured in various music video's choreographed by Alexandra Green Dance.'

Laura Lorenzi was born in Italy. She is one of the founders of The Sparse Collective, a group of international artists who specialise in improvisational performance. She graduated from 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 with a First Class Degree. She has been performing in the Touch Wood festival at the Place Theatre with Anders Duckworth and has worked on the new creation of The Cunning Little Vixen at Glyndbourne Opera House. She has performed with The Sparse Collective in different venues across the UK, Spain and Argentina.

미국 뉴욕

뉴욕 & 부산 공연예술네트워크 결성, 그 첫 단추

뉴욕 타블라 라사 씨어터에서 한국의 헬렌을 펼치다

project 02

뉴욕 & 부산 공연예술네트워크 결성, 그 첫 단추

뉴욕 타블라 라사 씨어터에서 한국의 헬렌을 펼치다

프로젝트명

뉴욕 & 부산 공연예술네트워크 결성, 그 첫 단추 – 뉴욕 타블라 라사 씨어터에서 한국의 헬렌을 펼치다

프로젝트 기간

2016년 11월 1일 ~ 2016년 11월 22일
(전체사업기간 : 2016년 7월 ~ 12월)

장소

La Nacional – Spanish Benevolent Society (미국 뉴욕 주 뉴욕 시)

협력 및 진행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Tabula RaSa NYC Theater and Performance Lab
La Nacional – Spanish Benevolent Society
Theater for the new city
Colombian Consul General in New York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후원

부산문화재단

책임 코디네이트

이지숙

참여 작가

이지숙, 주혜자, 진선미, 이효림, 김윤호, 이영재, 이지희, 전승은, 김범기

현지 코디네이트

김범기

행사 및 활동

1. 연극 〈마이 디어 헬렌〉 부산 및 뉴욕공연
   - 부산공연 : 2016. 8. 11 ~ 14(한결아트홀) / 2016. 9. 7. ~ 11(나다소극장)
   - 뉴욕공연 : 2016. 11. 7/11. 15 (La Nacional – Spanish Benevolent Society)
2. 뉴욕탐방프로그램
   - 5th BRONX LATIN AMERICAN ART BIENNAL 참관
   - 극장 및 창작공간 탐방
   - SLEEP NO MORE 공연관람
   - The New School : Feldenkrais for Actors and Performers 방문
3. 헬렌 프로젝트 공동워크숍
4. 국제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상호교류협정

언론매체 성과물

1. 국내 언론매체:
   - 국제신문(2016. 8. 8.) "마음의 눈을 뜨게할 연극 '마이 디어 헬렌' 대사 거의 없는 2인의 신체극…설치미술 작가 음향·무대 참여"
   - 부산일보(2016. 10. 12.) '또따또가' 함부르크 이어 뉴욕으로 뻗는다
   - 국제신문(2016. 11. 1.) 부산과 뉴욕을 잇는 또따또가의 연극 극단 배관공 대표·배우들, 美 활동 극단 타블라 라사 협업
   - 국제신문(2016. 12. 12.) 뉴욕 극단과 현지 공동작업…"세상을 보는 눈이 커졌어요" 부산극단 배관공 소속 예술가들

부산문화재단 지원금

20,000,000원

참여 계기

지난 몇 년 동안 넌버벌 공연 콘텐츠의 가능성에 대한 부산공연예술인들의 기대감과는 달리 지역에서의 시장성과 작업의 발전방향은 모호하기만 했다. 그 성공사례도 드물 뿐더러 에든버러와 아비뇽으로 좁혀진 유명 축제에 참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레지던시의 출발은 그 방향성의 대안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기획되었고 공연에 동참했던 현지 코디네이터가 소속된 뉴욕의 한 극단에서 교류 및 공연 초청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거대 산업으로서의 공연작업과 그 반대편에서 예술적인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버라이어티한 세계적 도시 뉴욕에서 넌버벌 공연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우선 앞서 공연했던 다른 넌버벌 공연레퍼토리에 비해 예산 면에서나 작품제작의 유동성에서나 참여인원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마이 디어 헬렌〉을 공연교류 콘텐츠로 정하고 작품의 색깔과 접근법 등이 유사한 뉴욕의 오프오프 브로드웨이 극단 '타블라 라사'의 교류를 성사시켰다. 특히 극단 '타블라 라사'는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 계열의 미국 정착민들이 건축한 '라 내쇼날'이라는 일종의 문화예술복합공간에 입주한 극단으로, 현재 부산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문화예술창작공간과의 교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팀이었다. 이에 '타블라 라사'의 연습공간과 사무실이 위치한 '라 내쇼날'과 이들의 후원 국가이자, 라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콜롬비아 영사관', '극단 배관공(BKG)'의 주요 작업공간인 '또따또가'가 함께 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예술 교류 협약을 제안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레지던시를 통해 반드시 성취하고자 했던 넌버벌 공연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비롯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밀도 있는 국제교류네트워크를 결성함으로써 본 사업의 참여 계기를 오롯한 성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내용 – 〈마이 디어 헬렌〉 공연

2016년 8월 11일 ~ 14일
〈마이 디어 헬렌〉 부산공연

공연장소	한결아트홀
공연시간	평일 20:00, 토·일 16:00(총 4회 공연)
연출	주혜자
출연	진선미, 이효림
프로듀서	이지숙
움직임연출	강희정
무대	윤필남, 김경화, 정만영
조명디자인	서자경
음악감독	이영재
STAFF	이하슬, 김윤호, 최정배, 이지희, 정기연
제작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제작협력	Tabula RaSa NYC Theater and Performance Lab
기획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마이 디어 헬렌〉 부산공연(한결아트홀)

〈마이 디어 헬렌〉 부산공연(한결아트홀) 포스터

2016년 9월 7일 ~ 11일 〈마이 디어 헬렌〉 제2회 나소페스티벌 참가

공연장소 나다소극장
공연시간 평일 20:00, 토·일 16:00 (총 5회 공연)
연출 주혜자
출연 이효림
프로듀서 이지숙
무대 윤필남, 김경화, 정만영
조명디자인 서자경
음악감독 이영재
STAFF 박기림, 신연주, 김영진, 김종휘, 이지희, 정기연
제작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제작협력 Tabula RaSa NYC Theater and Performance Lab

마이 디어 헬렌 – 제2회 나소페스티벌 참가

2016년 11월 7일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1차)

공연장소 La Naciona–ISpanish Benevolent Society
공연시간 19:30(1회 공연)
연 출 주혜자
출 연 이효림
프로듀서 이지숙
조명디자인 서자경
음악감독 이영재
STAFF (부산) 김윤호, 이지희, 전승은
(뉴욕) KLARA LOPERA, JORGE LUIS BERRIOS
TATIANA BARRERO, THIAGO JIMÉNEZ
RAMIRO ANTONIO SANDOVAL, KIM BUM KI
제 작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제작협력 Tabula RaSa NYC Theaterand Performance Lab
La Nacional–Spanish Benevolent Society
Theater for the new city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1차) 포스터

1.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1차) 스케치 / 2.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1차) /
3~4.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1차) 관객과의 대화

2016년 11월 15일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2차)

공연장소 La Nacional–Spanish Benevolent Society

공연시간 20:00(1회 공연)

연출 주혜자

출연 이효림, KLARA LOPERA, JORGE LUIS BERRIOS
TATIANA BARRERO, THIAGO JIMÉNEZ, CHRISTINE CHILD
PAULINA ERAZO, SEBASTIAN ALIAGA

프로듀서 이지숙

조명디자인 서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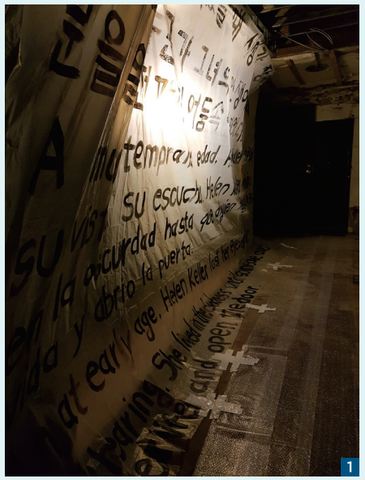
음악감독 이영재

STAFF (부산) 김윤호, 이지희, 전승은
(뉴욕) RAMIRO ANTONIO SANDOVAL, KIM BUM KI

제작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제작협력 Tabula RaSa NYC Theater and Performance Lab
La Nacional–Spanish Benevolent Society
Theater for the new city
Colombian Consul General in New York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2차) 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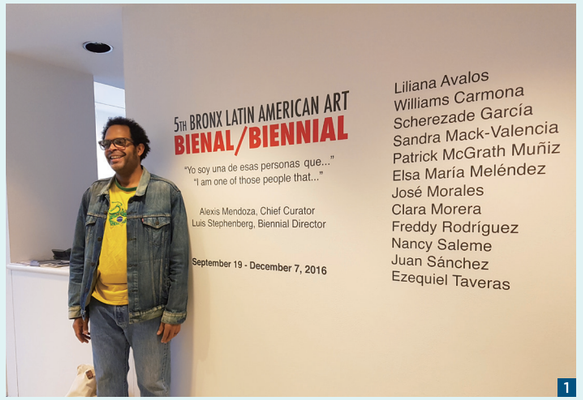
1.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2차) 셋업 / 2.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2차) 포스터 / 3.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2차) 리허설 / 4~5. 〈마이 디어 헬렌〉 뉴욕공연(2차) 관객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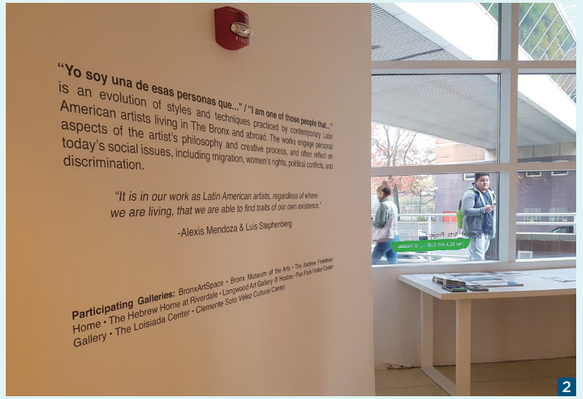
활동내용 – 뉴욕탐방프로그램

2016년 11월 3일 / 5th BRONX LATIN AMERICAN ART BIENNAL 참관

큐레이터 ALEXIS MENDOZA

방문공간 ABRAZO INTERNO GALLERY
(THE CLEMENTE SOTO VÉLEZ CULTUREAL & EDUCATIONAL CENTER)
LONGWOOD ART GALLERY@HOSTOS
BRONX MUSEUM OF TH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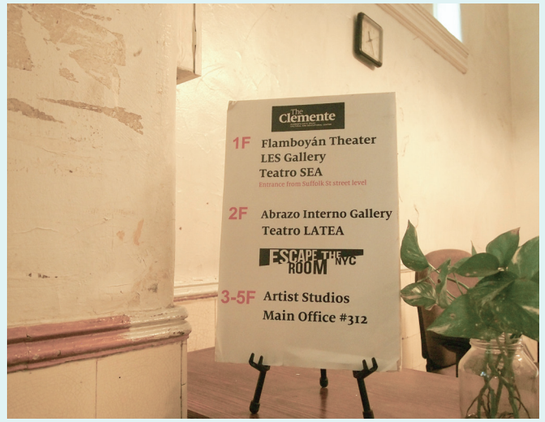
1. 5th BRONX LATIN AMERICAN ART BIENNAL(LONGWOOD ART GALLERY@HOSTOS) – 큐레이터 Alecis Mendoza / 2. 5th BRONX LATIN AMERICAN ART BIENNAL(LONGWOOD ART GALLERY@HOSTOS)

1~2. 5th BRONX LATIN AMERICAN ART BIENNAL(BRONX MUSEUM OF THE ARTS)
3. 5th BRONX LATIN AMERICAN ART BIENNAL(LONGWOOD ART GALLERY@HOSTOS)
4. 5th BRONX LATIN AMERICAN ART BIENNAL(ABRAZO INTERNO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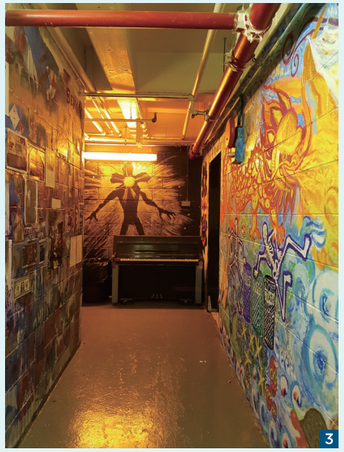
2016년 11월 4일 / 극장 및 창작공간 투어

- THE CLEMENTE SOTO VÉLEZ CULTUREAL & EDUCATIONAL CENTER
- THEATER FOR THE NEW CITY
- La Nacional – Spanish Benevolent Society
- 145ST DOMINIC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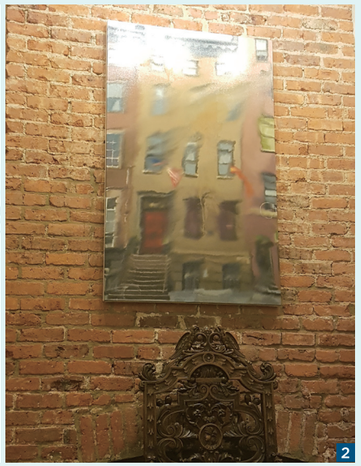
극장 및 창작공간 투어(THE CLEMENTE SOTO VÉLEZ CULTUREAL & EDUCATIONAL CENTER)



극장 및 창작공간 투어(THE CLEMENTE SOTO VÉLEZ CULTUREAL & EDUCATIONAL CENTER)



1~3. 극장 및 창작공간 투어(Theater For The New City) / 4. 극장 및 창작공간 투어(Theater For The New City-극장 대표와 함께)



1. 극장 및 창작공간 투어(Theater For The New City) / 2~3. 극장 및 창작공간 투어(La Nacional – Spanish Benevolent Society) /
4. 극장 및 창작공간 투어(극장 및 창작공간 투어(145ST DOMINICAN CULTURAL CENTER))

2016년 11월 8일 / 공연관람

공연명 SLEEP NO MORE
공연장소 The McKittrick Hotel
(530 West 27th Street New York, NY 10001)

2016년 11월 17일 / The New School : Feldenkrais for Actors and Performers 연기수업참관

장소 Arnhold Hall(55 West 13th St., Room 930 (9th floor))
시간 18:00~20:40
강사 JOHN C. MURPHY(교수)

공연관람 〈Sleep no more〉

활동내용 - 헬렌 프로젝트 공동워크숍

2016년 11월 9일 / 워크숍(1) 한국 전통 탈놀음 동래야류의 기본

장소 The Clemente Soto Vélez 연습실

내용 공동 몸풀이

한국 전통 가면극의 기원과 갈래에 대한 설명

동래야류의 연희 배경 및 각 과장의 줄거리와 캐릭터 설명

야류의 몸짓, 한국 전통 춤의 장단과 사위 설명 및 연습

장단 별 기본 몸짓과 호흡법, 덧뵈기 춤 시연 및 연습

2016년 11월 10일 / 워크숍(2) 한국 전통 가면극 동래야류의 실연

장소 The Clemente Soto Vélez 연습실

내용 공동 몸풀이

동래야류 각 과장의 시연을 통한 이해

할미과장의 캐릭터와 대사, 소품, 동선, 움직임에 대한 연습

팀 구성 및 캐릭터별 연습

팀별 발표 및 감상, 토론

동래야류 등과 비슷한 각 나라의 들놀음 문화에 대한 토론

2016년 11월 11일 / 워크숍(3) '타블라 라사' 연기 메소드 기본

장소 The Clemente Soto Vélez 연습실

내용 자크 르콕의 가면훈련 설명

Neutral Mask와 Character Mask의 개념 설명

Neutral Mask 기본 훈련과 확장 연습

Character Mask 훈련의 실제 응용 발표

Mask와 etude에 대한 감상 토론

2016년 11월12일 / 워크숍(4) '타블라 라사' 연기 메소드

장소 La Nacional salon

내용 '미카엘 체홉의 테크닉연기'에 대한 설명

오브제에 의한 상상력, 창의력 훈련 및 etude 발표

Hero의 개념과 실제 훈련

Hero의 Chorus의 움직임 훈련

무대 존재들의 Balance, Dynamic, Dramatic 추구

장면에 대한 감상 및 참여소감 토론

2016년 11월 13일 / 워크숍(5) 〈마이 디어 헬렌〉 관련 연기 워크숍

장소 La Nacional salon

내용 '헬렌 켈러' 캐릭터 구축 및 공연제작 과정 설명

Hero와 Chorus 개념을 응용한 장면 심화 연습

헬렌과 Chorus의 교감 과정 진행

각 등장 캐릭터들의 이미지 제안

만들어진 장면에 대한 토론

2016년 11월 14일 : 워크샵(6) 〈마이 디어 헬렌〉 합동공연 준비 워크샵

장소 La Nacional salon

내용 연기 공간 설명 및 동선 정리

소품, 음악에 맞춘 연기 리허설

헬렌과의 감각적 접촉을 위한 연기 훈련

임의관객으로서의 공연 체험

공연 전체 점검 및 워크샵 관련 대론

헬렌 프로젝트 공동워크숍

활동내용 - 국제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상호교류협정

2016년 11월 18일 / 국제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상호교류협정

장소 콜롬비아영사관(뉴욕)

내용 한국의 부산, 미국의 뉴욕, 콜롬비아 보가타의 문화예술 상호교류 및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참여 나라 예술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상호교류협정

참여기관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부산, 한국)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부산, 한국)
La Nacional–Spanish Benevolent Society(뉴욕, 미국)
Tabula RaSa NYC Theater and Performance Lab(뉴욕, 미국)
Colombian Consul General in New York

국제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상호교류협정

국제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상호교류협정

2016년 미국 뉴욕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작가 약력

이지숙

2016 2016 동아시아 연극교류캠프(홍보)
하나로 프로젝트 Vol.3(기획)
2015 부산-후쿠오카 だ·댄·다 댄스프로젝트(기획, 운영)
연극 〈폭풍의 언덕〉(기획, 홍보)
2014 동아시아 협력 프로젝트 : PLAN-Co(운영)
연극 〈맑으면 보여〉(부산-후쿠오카 협력프로듀서)
연극 〈파도소녀〉(부산-후쿠오카 협력프로듀서)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참가
-〈마이 디어 헬렌〉(제작프로듀서)
연극 〈남자의 로망〉(기획)
2013 연극 〈시네틱드라마 증인들2〉(제작프로듀서)
2012 연극 〈마이 디어 헬렌〉(제작프로듀서)
2011~2016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운영지원센터/팀장)
2012~2015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기획, 운영)
2010~2011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사무국장)
2006~2010 부산국제연극제(기획, 홍보)

주혜자

2016 [연극] 하나로프로젝트 〈조그만 예배당〉 연출
[연극] 부산연극제 경연작 〈급제록〉 작/연출
2015 [연극] 포항시립극단 제120회 정기공연
〈벙어리 삼룡이〉 연출
[연극] 〈폭풍의 언덕〉 연출
2014 [연극] 한일교류공연 〈맑으면 보여〉 코디네이터
[연극] 제11회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마이 디어 헬렌〉 연출
[연극] 부산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안네의 일기〉 연출
[연극] 한일합작공연 〈파도소녀〉 협력연출
2013 [뮤지컬] 〈비틀깨비〉 연출
[연극] 〈시네틱드라마 증인들2〉 작/연출
[연극] 부산문화재단 2013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한국인도합작공연 〈보울-바리데기 이야기〉 연출
[연극] 낭독극 〈헬렌을 읽다〉 작/연출
2012 [비언어극워크숍] 〈마이 디어 헬렌〉
[연극] 〈증인들〉 연출
[행사] UN평화축전 PEACE MOB 무대감독
[연극] 〈열대야〉 연출
[희곡] 〈더 브릿지〉 2012 부산문화스토리텔링개발사업
가작 당선
2011 [뮤지컬]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피터팬〉 연출
[연극] 〈무엇으로부터〉 작, 연출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2002〉 〈더 브릿지 2003, 2008〉
〈멸망과 새로운 생명 2005〉 〈거짓된 호르몬 D.O.X 2006〉 등 다수의 작, 연출

진선미

연극
〈검정고무신〉 〈길〉 〈굿나잇, 마더〉 〈반쪽 날개로 날아 온 새〉 〈어떤 싸움의 기록〉 〈의무의 희생자〉 〈국수집 남자 밥집 여자〉 〈운악〉 〈웃어요 할매〉 〈거기, 두루마을에 있다〉 〈드라마〉 〈마이 디어 헬렌〉

영화
장편 〈미스진은 예쁘다〉 단편 〈아웃 빽〉

수상경력
2000년 부산연극제 최우수여자연기상
2003년 부산연극제 우수여자연기상
2008년 전국연극제 연기상
2013년 부산연극제 우수연기상

기타
2013년 ~ 현재 연극비평지 〈봄〉 발행

이효림

연극
〈어떤 싸움의 기록〉 〈따로 또 같이〉 〈유랑의 노래〉 〈나쁜연극〉 〈의무의 희생자〉 〈돼지와 오토바이〉 〈마이 디어 헬렌〉 〈미치지 않고서야〉 〈파도소녀〉 〈마고〉 〈거기, 두루마을이 있다〉 〈불꽃〉

영화
장편 〈눈이라도 내렸으면〉

수상경력
부산민속예술축제 동래야류 상쇠 개인상 수상

김윤호

연극
〈나들목〉 〈기로시의 반란〉 〈넌버벌 퍼포먼스 새 사람〉
〈살고 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남자의 로망-그녀를 소개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나무는 서서 죽는다〉 〈씨크릿〉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폭력의 세기〉

뮤지컬
〈친구〉 〈맘마미아〉 〈라이언 킹〉 〈그러나 낯설지 않은〉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영화
독립영화 〈아웃 빽〉 장편 〈우리형〉 독립영화 〈거류〉

방송
부산MBC '두 남자의 함께 하는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수상경력
2011년 밀양여름예술축제 남자연기상

이영재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전공
연세대학교 영상음악원 수료
경희대학교 포스터모던 실용음악과 석사

2016 부산연극제 경연작 〈급제록〉 음악감독
2015 넌버벌 〈파이어맨〉 음악작곡
〈우리엄마 정숙이 차여사〉 음악작곡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음악작곡
〈위대한 낙화〉 음악작곡
〈벙어리 삼룡이〉 음악작곡
2014 〈안네의 일기〉 음악작곡
넌버벌 〈비밥, 2014〉 〈운악, 2013〉 등 다수의 음악 작업참여

김범기

현재 극단 타블라 로사 Electrician &Theatre Technician,
공연제작프로듀서

2015 Sala de Teatro RAFAAEL VILLALONA 'Winter of april' (USA.NY) (무대디자인 및 기술감독)
2014 Theater for the new city 'Winter of april' (USA.NY) (무대디자인 및 기술감독)
2012 호주 아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개똥할매' (무대감독 및 조명디자인)
2009 사라예보 겨울 축제 그랜드 오프닝 개막공연 '풍물공연' (Bosnia and Hezegovina) (무대감독 및 조명디자인)
2008~2012 MBC롯데아트홀 (뮤지컬극장 리노베이션 총괄감독 및 제작매니저)

수상경력

2015년 Winner Audience Award Best Lighting Design.
(Sala de Teatro RAFAAEL VILLALONA 'Winter of april' (USA.NY))

이지희

2016 부산국립국악원 상설공연 '왕비의잔치' 조연출
궁중문화축전 '세계왕실문화교류공연'기획, 진행
2015 더 클래식경남 콘서트 마케팅
2014 제7회 대한민국 기업사랑음악회 마케팅
2013 창작무용극 평화를 부르는 소리 '만파식적' 기획, 운영
2012 한중수교20주년기념 개폐막문화행사 (서울, 북경) 진행
한국-카자흐스탄 수교20주년 기념공연 (서울) 진행
2011 한-호주수교50주년기념 개폐막문화행사 (시드니) 진행

전승은

2016 국악밴드 모락 〈엄마의 콘서트〉 조명오퍼레이터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국보건축 기행단〉 강사
2013 부산디지털콘텐츠유니버시아드(프로그램팀장)
김해인문학영화제(총괄운영)
2011 한중대학영화제(초청팀장)
2010 부산여성영화제(기획팀)
2010~2013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프로그램팀장)

참여작가 활동후기

• 주혜자

뉴욕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꾸준히 뉴욕과의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그때는 타블라 라사 씨어터를 비롯해 그렇게 많은 뉴요커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치 못했다. 그런 면에서 타블라 라사 씨어터의 멤버들과의 진한 우정과 단단한 멤버십이야말로 이번 뉴욕 레지던시의 가장 큰 성과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하루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도 한편으로 뉴욕 여가생활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파티와 뜻깊은 만남들을 주선해준 타블라 라사 식구들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다. 자칫 언어 때문에 활동이 위축되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도 '책임'이 아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그 모든 우려들을 뛰어넘는 깊은 배려 속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레지던시의 하이라이트였던 각 단체의 워크숍과 합동 공연을 통해 인종과 동서양의 문화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통해 형제이자 가족으로서 뜨겁게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타블라 라사 씨어터의 라미로 안토니오 산도발 연출의 도움으로 〈마이 디어 헬렌〉의 새로운 방향성을 확인하고 2017년의 보고타여성축제의 초청작(콜롬비아)으로 선정되어 다음 협업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 또한 뚜렷한 성과다. 이어 작품을 제작한 '배관공(BKG)'과 초청주최인 '타블라 라사 씨어터'를 비롯해 '또따또가', '라 내쇼날', '콜롬비아 영사관'이 MOU라는 결실을 맺으며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인 국제교류네트워크까지 형성되어 다음 국제교류작업의 청사진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뉴욕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거둔 뜨거운 에너지와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은 작가, 코디네이터와 공유할 수 있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맺는다.

• 진선미

뉴욕에 머무는 일은 쉽지 않다. 낯선 언어와 높은 물가, 혼잡한 시내, 다민족이민국가의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다른 시스템의 혼재 속에서 오로지 '연극'을 매개로 21일을 살아야 하는 레지던시 사업은 처음에는 두렵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기분과 상태를 알아채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뉴욕은 자본주의 메카답게 상업적으로 성공한 대형뮤지컬이나 공연물이 경쟁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곳이다. 그곳에서 21일 동안 우리는 '연극하는 인간'을 만나 '인간'을 찾고 '인간'을 이야기해야 했다. 극단 '타블로 라사'와 조우한 것은 어쩌면 다행한 일이었다. 히스패닉 라티노들로 이루어진 이 극단은 개인들의 태생적 특성상 우리와 매우 닮아 있었고, 연출가인 라미로는 인간의 정체성과 연극의 임무에 대해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극단 타블로 라사 단원들은 인간적으로 친근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며칠간 워크숍을 통해 낯선 이방의 언어를 넘어 소통하였고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는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며(이러한 문화는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연극적 고민을 나누고 개인 간 정서까지 주고받았다. 워크숍 전후 한국 측 공연을 매개로 협업하는 과정 또한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하는 데 크고 중요한 시간이었다.

레지던시 말미에는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불렀고 우리는 또 만날 것을 아니, 계속 만날 것을 약속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예술이 세계의 평화와 사랑, 진실에 대해 말하길 포기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 이효림

이번 사업으로 뉴욕의 다양한 예술탐방 및 현지 극단과의 만남을 통해 알차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산의 배우로서 참가한 본인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공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산의 연극 〈마이 디어 헬렌〉을 뉴욕에 선보이게 되었는데, 넌버벌 형식의 공연이었기에 언어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 역시 '새로웠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등등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질문에는 '연기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몸을 움직일 때와 연기할 때의 차이가 있는가?' 등등 부산에서는 얻지 못한 질문을 받으며 관객들의 반응 역시 부산과 뉴욕의 분위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지 극단 '타블라 라사' 팀원들과 6회의 워크숍으로, 부산의 연극을 전수하고, '타블라 라사'의 배우훈련을 받았는데, 이러한 교류를 통해 연극, 연기, 공연, 예술, 교육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겪으며 친밀도도 높아지고,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우리가 함께 이뤄낼 수 있을 연극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두터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현지 배우들과 함께한 또 다른 〈마이 디어 헬렌〉은 워크숍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이용하고, '타블라 라사'의 도움을 받아 훨씬 발전된 공연을 올릴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뉴욕 현지 공연을 관극하는 활동도 있었는데, 〈Sleep no more〉 는 우리와는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을 엿볼 수 있어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현지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배우는 댄스센터를 직접 다녀보며 나와 같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얻고 느낀 것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부산과 뉴욕, 도시의 느낌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연극 또는 연기, 예술 분야에서 달랐던 점– 뉴욕의 연기술, 다양한 목적의 극장 및 공간의 활용 등등 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해나간다면 큰 발전이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지희

11월 1일 처음 뉴욕에 발 딛으면서 첫 느낌은 약간의 설렘이었다. 미지의 곳에서 관광도 출장도 아닌, 삶은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의 설렘은 항상 사람을 긴장시키고, 왠지 모를 흥분을 가지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날씨도 '인디안 썸머'라 칭한다는 따뜻한 날씨로 우리를 맞이해줘서 도움이 되었고, 타블라 라사 식구들, 라 내쇼날 식구들도 따뜻하게 환대해줘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뉴욕이라는 곳이 바쁘고 차갑기만 할 것이라는 내 상상이 빗나가게끔...
극장투어로 여러 소극장들(오프오프 브로드웨이)의 환경들도 살펴볼 수 있었고, 배우들의 워크숍도 참관하고, 미술관 탐방,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관람, 함께 간 멤버들과의 생활로 좀 더 많은 것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인상에 남는건, "Theater for The New City(뉴시티 극장)"의 운영이었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극장은 지역아티스트들의 협력과 극장주의 신념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예술가들의 자원봉사로 소품들과 극장이 유지되고, 또 극장은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소품과 장소를 대여해 주며, 서로 도움을 주는 상생관계에 있는 곳이었다. 부산에서도 이런 곳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생겼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센트럴파크(뉴요커의 자부심이라 하는 공원)뿐 아니라 곳곳에 있는 공원, 주택가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가로수 등이 마음의 여유를 주고,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러워보였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듯 예술도 어우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도는 것 같은 뉴욕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약간은 과시하는 듯 한 예술도, 민중예술도, 그리고 생계형 예술도 녹아 있는 듯 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함께 교류한 타블로 라사 식구들과의 만남도 뜻깊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만날 때마다 미소와 포옹으로 반겨주는 따뜻한 사람들.
워크숍 때 동래야류를 소개하자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공감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보면서 말은 통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계에 통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1일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체험과 만남을 가지며 느낀 것을 문장 몇 줄로 남긴다는 건 힘들 일이지만, 내가 당분간 무언가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생길 때 기준이 될 경험을 하고 왔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다

• 전승은

극단 Tabula Rasa와 〈마이 디어, 헬렌〉 공연에 대해 함께 생각과 경험을 교류하는 과정은 무척 즐거웠다. 뉴욕에서 만난 스페니쉬 극단과 Peace(평화)라는 타이틀을 두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특히, 극단 Tabula Rasa에서 먼저 이 프로젝트의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타이틀인 '국제교류'에 'Peace exchange(평화교류)'라는 타이틀을 덧붙이기를 제안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진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참 좋았다.

언론보도자료-국내언론매체

국제신문 2016. 8. 8.

마음의 눈을 뜨게할 연극 '마이 디어 헬렌'

대사 거의 없는 2인의 신체극…설치미술 작가 음향·무대 참여

11~14일 거제동 한결아트홀

헬렌 켈러(Helen Keller·1880~1968)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른다. 11일 한결아트홀에서 개막하는 극단 배관공의 연극 '마이 디어 헬렌'(주혜자 작·연출)이다. 어린 시절 위인전으로 익숙한 헬렌 켈러는 시·청각 장애를 딛고 작가이자 사회사업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헬렌 켈러처럼 잘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관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연극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대사가 거의 없는 신체극으로, 다양한 무대 이미지와 음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무대를 볼 수 없어도, 증폭된 사운드를 통해 마치 관객 바로 앞에서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장치했다. 윤필남 김경화 설치미술 작가가 무대를 만들고, 정만영 사운드설치미술 작가가 음향에 참여했다. 시·청각장애인을 초청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이 디어 헬렌'은 2012년 초연돼 2014년에도 무대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버전을 포함해 세 작품은 제목과 소재만 같을 뿐 주제나 표현 방식에서는 전혀 다른 시도를 해 눈길을 끈다. 앞서 두 편의 연극은 '헬렌의 봄', '숲의 헬렌', '달과 헬렌' 등 3장에서 각각 가정교사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는 이야기, 헬렌의 외로움과 고독, 헬렌의 개인사를 다뤘다. 2012년은 2인극, 2014년은 1인극으로 풀어냈다. 이번 공연은 헬렌 켈러(이효림)가 설리반 선생님(진선미)을 만나 세상에 눈뜨는 과정을 그린 '헬렌의 봄'에 중점을 둔 2인극으로 진행된다.

주혜자 연출은 "헬렌과 설리반 선생님의 소통과 교감을 표현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현실에서 주고받는 수많은 언어, 말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다시 되돌아볼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말 그 자체로서가 아닌 또 다른 감각, 에너지(의지), 지독한 사고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의 열린 가슴이 없다면 그조차도 그저 공허한 울림일 뿐이라는 점, 그래서 결국 온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타고난 고독감과 좌절감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헬렌 켈러의 고향'인 미국의 예술가와 협업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부산문화재단의 '2016년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지원을 받은 이 작품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타블라 라사와 교류 작업을 하며 작품을 만들었다. 오는 11월 미국 뉴욕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연극 '마이 디어 헬렌'=11~14일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결아트홀, 균일 2만5000원, 문의 070-4035-8819.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부산일보 2016. 10. 12.

'또따또가' 함부르크 이어 뉴욕으로 뻗는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작가들이 유럽에 이어 아메리카 대륙에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또따또가는 다음 달 중순 미국 뉴욕의 히스패닉계 예술인 창작문화공간인 '라 나쇼날(La Nacional)'과 국제교류 협약을 맺는다고 11일 밝혔다.

극단 '배관공' 연극팀 방미
국제교류 협약·합동 공연
유럽 넘어 아메리카로…
남미 콜롬비아 초청도 받아

이번 협약은 부산문화재단의 국제레지던시 파견사업의 하나로 부산지역 연극인들이 라 나쇼날 입주 극단인 '타블라 라사'와 공동 워크숍을 추진한 게 계기가 됐다. 다음 달 초 극단 '배관공' 소속 '마이 디어 헬렌' 연극팀이 뉴욕을 방문해 20일 동안 라 나쇼날에 머물며 오리지널 버전을 공연한다. 이어 타블라 라사 극단과 공동 워크숍을 통해 '마이 디어 헬렌'의 새 버전을 만들어 합동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마이 디어 헬렌'은 시청각 장애인 사회활동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다룬 무언 신체극이다. 연출가인 주혜자와 주연 진선미 배우가 현재 또따또가 입주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두 극단의 합동 공연에 이어 양 기관이 협약까지 맺게 되면서 향후 정기적인 예술 교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콜롬비아 영사관 측이 자국 '여성연극축제'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남미 대륙에도 두 극단의 합동 공연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또따또가를 포함해 5개 기관(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부산독일명예영사관, 함부르크시 산하 창조유한회사, 골목구역)이 협약(본보 지난해 12월 24일 자 2면 보도)을 맺고 처음으로 또따또가 작가들의 해외교류 길이 열렸다. 올해에는 한국해양대와 하펜시티대학간 교환학생 제도도 생겨 부산-함부르크 간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됐다. 2학기부터 교환학생 한나 하트만(24·여) 씨가 한국해양대에서 수업을 들으며 실습을 겸해 또따또가 작가들과 만나고 있다. 하트만 씨는 12월까지 부산에 머물며 또따또가를 독일에 소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지난 7일에는 하펜시티대학 리자 코족 교수가 포럼 참석 차 부산을 방문해 또따또가를 찾기도 했다.

전시·공연·창작공간과 공동작업실 등을 둘러본 코족 교수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섞여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적이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해외교류 판은 마련됐지만 정기적인 교류까지는 현실적인 난관이 남아 있다. 협약을 통해 상호 간 작업실, 숙소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항공비와 체류비 등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김희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은 "현실적으로 작가들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기는 힘들어 고민이다"며 "정기적인 예술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문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국제신문 2016. 11. 1.

부산과 뉴욕을 잇는 또따또가의 연극

극단 배관공 대표·배우들, 美 활동 극단 타블라 라사 협업

현지 공연·콜롬비아 축제 참가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의 예술가들이 미국 뉴욕 무대에 진출한다. 또따또가 입주작가이자 극단 배관공의 대표 주혜자 연출자와 배우 진선미, 이효림, 김윤도 등 예술가 10명은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극단 '타블라 라사'와 협업 작업을 위해 1일 출국했다. 이들은 뉴욕에 있는 히스패닉계 예술창작공간 '라 나쇼날'에서 머물며 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마이 디어 헬렌'을 현지에서 공연하고, 극단 타블라 라사와 워크숍을 하며 이 작품의 새로운 버전도 만들어 공연하기로 했다. 이들의 뉴욕 진출은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성사됐다. 주 연출자는 2012년 초연한 '마이 디어 헬렌'을 처음부터 해외에 선보일 목적으로 만들었다. '마이 디어 헬렌'은 헬렌 켈러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으로 대사 없이 얼굴 표정과 몸짓, 무대예술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체극이다.

주 연출자를 포함해 또따또가 예술가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후배 예술인에게 공연 영상을 보냈고, 그들이 다시 현지 예술가에게 작품을 보여주는 식으로 '마이 디어 헬렌'을 알렸다. 마침내 극단 '타블라 라사'가 관심을 보이며 미국에서 워크숍을 제안해 이번 작업이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또 있다. 또따또가와 예술창작공간 '라 나쇼날'이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과 뉴욕 예술가들의 교류를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라 나쇼날'은 히스패닉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시, 공연 등을 주선하는 곳이라 또따또가와 지향하는 점이 비슷하다. 또따또가 김희진 운영지원센터장이 뉴욕으로 건너가 오는 18일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 주 연출자는 극단 '타블라 라사'의 라미로 안토니오 산도발 연출자의 주선으로 내년 8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여성 연극 축제'에 참가할 기회도 얻었다. 여기서는 두 극단이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마이 디어 헬렌'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지숙 프로듀서는 "부산의 공연을 뉴욕에 보여줄 좋은 기회를 얻었다"면서 "현지에서 부산의 예술 작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 공연 주간'을 제안해 지역 예술가의 미국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국제신문 2016. 12. 12.

"뉴욕 극단과 현지 공동작업…세상을 보는 눈이 커졌어요"

부산극단 배관공 소속 예술가들

- 부산문화재단 국제레지던시 선정
- 극단 타블라 라사와 3주 워크숍
- 함께 지내고 밤낮없이 토론하며
- 기존 작품 새 버전 만들어내
- 예술단체간 상호교류 협약도

"부산 예술가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도록 돕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지난달 미국 뉴욕 극단 '타블라 라사'와 3주간 공동 작업한 극단 배관공의 주혜자 (왼쪽에서 3번째) 연출자가 공연 뒤 현지 관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극단 배관공 제공

극단 배관공 이지숙 PD의 '뉴욕 탐방기'는 쉴새 없이 이어졌다. 그는 지난달 1~22일 미국 뉴욕의 극단 '타블라 라사'와 극단 배관공의 공동 작업을 기획, 진행했다. 극단 배관공의 주혜자 연출자와 배우 진선미, 이효림 등 예술가 10명은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타블라 라사와 3주간 함께 지내며 배관공의 대표작 '마이 디어 헬렌' 공연과 공동 워크숍을 진행(본지 지난달 2일 자 21면 보도)했다.

"〈마이 디어 헬렌〉은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작품이에요. 대사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신체극이고, 모든 이가 아는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죠. 연극계 선배를 통해 타블라 라사를 소개받았고, 영상을 보냈더니 공동 작업을 제안하더군요. 부산문화재단 '국제레지던시사업'에 선정돼 뉴욕으로 건너갈 수 있었는데 처음엔 얼마나 떨리던지…. 예술가가 동경하는 곳에서 새로운 공연과 색다른 공간, 선진 기부 문화까지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공동 작업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타블라 라사의 적극성 덕분에 밤낮없이 작품과 예술에 관해 토론하느라 쪽잠을 자야 했고, 현지 극장 공연 외에도 공동 워크숍을 통해 '마이 디어 헬렌'의 새 버전을 만드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뉴욕에 도착하기 4개월 전부터 매주 타블라 라사와 화상회의를 하며 작품과 연출 방향을 놓고 회의했어요. 화상회의의 한계도 있었지만, 소통은 잘 이뤄져 재밌게 작업했죠. 1인극 '마이 디어 헬렌'에 많은 배우가 앙상블로 등장하는 장면을 집어넣고 현지인이 이해하기 쉽게 무대장치를 바꾸는 작업 등을 통해 새로운 버전의 '마이 디어 헬렌'이 나왔고, 현지 관객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어요."

해외 진출을 꿈꾸는 지역 예술가를 위한 성과도 얻었다. 극단 배관공이 입주한 부산의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와 타블라 라사가 입주한 히스패닉계 예술창작공간 '라 나쇼날', 콜롬비아영사관 등 5곳이 협약을 맺고 예술가 교류와 상호 공간 지원을 약속했다. 서로 부산과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며 레지던시 작업을 할 기회를 주고, 히스패닉계 예술축제 참여도 추진한다. 내년 8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여성연극축제에 이번에 공동 작업한 '마이 디어 헬렌'을 공연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라틴아메리카 단편영화제'와 부산의 영화제가 교류할 방법도 모색한다.

"그동안 해외 진출이라면 대체로 세계적인 예술축제에 가서 작품만 공연하고 돌아오는 형태였죠. 하지만 이번 작업은 예술가들이 같이 지내고 교류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새로운 눈을 떴다는 점이 소득이었어요. 공간 교류의 발판도 만들었으니 더 많은 부산의 예술가, 특히 연극인이 해외 무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또따또가에서 5년간 일하며 지역 예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절감한 이 PD는 이번 경험으로 새 꿈이 생겼다. "지역 예술인의 해외 레지던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처럼 비슷한 조건의 예술집단과 창작공간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하면 돌파구가 생길 것 같아요. 지역 예술가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꿈을 실천할 방법을 이제 찾아야죠."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발행 | (재)부산문화재단
발행인 | 유 종 목
발행일 | 2016년 12월 22일

기획 | (재)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국제협력팀
진행 | 박승환(팀장), 강민규(담당자)
코디네이터 | 허경미, 이지숙
사진, 글 | 각 팀 코디네이터, 국제협력팀

발행처 | (재)부산문화재단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Tel. 051-744-7707 **Fax.** 051-744-7708~9
www.bscf.or.kr

디자인, 제작 | 다인문화사
051-242-4839

발행부수 | 500부
가격 | 비매품

copy right (재)부산문화재단
저작권법상 허용된 것 이외에 본 내용물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가장 빠른 [부산문화재단] 소식!
실시간 공유!

부산문화재단
최신소식 공유하기

부산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부산문화재단

문화행사 사진은
인스타그램으로!

#부산문화재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부산문화재단]을 검색 하신 후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SNS관련문의 기획홍보팀 051-745-7223~4